

의과대학이란 어떤 곳일까 ???

■ 이 순 형

한번 도전할 가치가 있는 산정(山頂)

1. 첫강의

의예과에서 본과로 진입하는 진입식이 끝나자마자 첫날 첫시간부터 강의가 시작되는 것이 의과대학의 특징임은 이미 얘기한 바 있다.

그런데 첫시간은 보통 그 강좌를 맡게 되는 교수소개와 강좌의 중요성이나 의의, 그리고 읽어야 할 교과서 및 참고서의 소개로 이루어진다. 다른 대학과 달리, 의과대학에서는 교육, 연구 및 진료 등 전공학문의 기능단위를 과(科)라 하지 않고 교실(敎室)이라는 말을 쓰는 전통이 있다. 따라서 교실은 상식적으로 알고있는 초.중.고교의 강의장소와는 다르다. 의대교수들은 모두 교실에 소속되어 있으며 타대학의 과장격인 주임교수가 행정적, 학문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다.

첫시간에는 교실의 주임교수가 모든 소속교수 및 조교들을 이끌고 강의실에 들어온다. 그리고 교수들의 전공분야 및 업적을 일일이 소개를 한다. 그런데 학생들의 아버지쯤되는 연배의 머리가 희끗희끗한 교수를 『○○○군은 우리나라 ××학회의 회장을 맡고있고 △△분야의 권위자이다』라 소개할때 학생들은 그저 아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통상 주임교수는 그 교실의 최연장자가 되는 것이 관습이 되어왔고, 따라서 주임교수와 소개받는 교수와는 사제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군』이라는 호칭을 즐겨쓰는 노교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주임교수라는 직책이 학문적인 최고 권위자로서보다는 행정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

어 최연장자가 반드시 말아야 한다는 전래의 통념이 퇴색하고 있고, 또 일본식 권위주의적 호칭인 『군』에 대한 저항감도 늘어나 『○○○ 선생』 『××× 교수』 등으로 불리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교실의 규모에 따라 큰 교실은 전임강사이상의 교수 수가 수십명이 되는가 하면 희귀한 전공인 경우에는 한사람의 교수가 외롭게 있는 수도 있다. 어쨌든 교수소개가 끝나고 나면 교실의 역사와 그 전공학문의 맥이 어떻게 이어져왔는가, 의학에서의 그 전공학문의 위치, 중요성, 앞으로의 발전추세등을 학생들은 소개받는다. 그리고 나서 읽어야 할 교과서, 참고서를 일일이 소개 받는다. 이 책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저책은 또 저러저러한 면이 강조되어있다는 등 책의 실물을 갖다놓고 설명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때로는 책의 목록을 적은 유인물을 받기도 한다.

그러는 가운데 50분짜리 강의시간은 다 지나게 되지만 시간이 남으면 곧 학과수업으로 이어지기 일쑤이다.

이런 첫시간 강의를 받을때면 주임교수의 위치가 하늘갈기도 하고 왕갈기도 하여 학문적 야심이 있는 학생이면 한번 도전할 가치가 있는 산정(山頂)임을 깨닫게 되기도 한다.

2. 조교

교실의 교수와 강좌, 그리고 참고서적들을 소개할 때, 책을 들고 들어가거나 교수가 칠판에 쓴 것을 지우개를 들고 썼다가 재빨리 지우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이른바 조교이다. 흔히 조교

라 하면 군대에서 시범을 보이는 사병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의대의 조교는 주임교수라는 산정에 도전하는 폐기만만한 젊은 학자들이다. 의과대학졸업생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장차 모교의 교수가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임명하는 것이 조교라 할 수 있다.

첫시간에 학생들이 볼 때에는 책이나 나르고 칠판이나 지우는 허드레 일뿐 같으나, 학생들에게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칠 수 있는 직책이 조교라는 사실을 강의와 실습이 진행되면서 곧 알게되는 것이다.

조교는 교실의 기능을 수행하는 직접적인 일손이 된다. 교수의 강의준비를 위한 문헌의 수집이라든가, 실습에 필요한 준비, 연구에 필요한 실험, 출석부르기, 칠판짓기, 시험지의 채점등 여러가지 일을 실세없이 하여야 하며, 한편 대학원생으로서 대학원강의 수강, 세미나 참석, 논문작성등 그야말로 눈코뜰 사이없이 일해야 하는 시기가 조교시절이다. 여기에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게되면 가장으로서의 임무가 추가됨은 말할 것도 없다.

조교들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은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주례사가 있다. 즉 『조교들은 실험과 연구때문에 며칠씩 밤을 새우게 되는 수도 있기때문에 신부는 이를 이해하고 불평하지 말라』든가 『조교들은 장차 학자로 대성할 사람이므로 공부에 방해가 되는 정신적인 부담을 주지말라』는 대목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별을 보면서 출근하여 별을 보면서 퇴근하는것이 조교생활이라 할 수 있

졌다.

요즘은 소정의 조교봉급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 되었지만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봉급을 받지 못하는 무급 조교가 대부분이었다. 해박한 교수의 지식을 전수 받아 후일 훌륭한 교수가 되고자 도시락을 싸들고 자원하여 무급조교가 되었고 또 이를 자랑으로 생각하였었다.

그러니 일반사회에서 생각하는 의사의 보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돈과는 거리가 먼 인생의 길을 걷게 된다. 옛날에는 학문을 익히기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하여 교수의 개인비서나 당번병같은 구실도 하여야 했다. 이를테면 모자나 외투, 가방등을 들고 다닌다든가 담배나 차심부름 같은 일들이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하여 제자로 대접을 받고 학문을 배우게 되는 것이 도제교육시대의 질차였었다. 실제로 의학이라는 학문의 성격이 다분히 도제교육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따라서 교수의 학문외적인 심부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만이 스승을 모실 수 있는 영광스런 기회라 생각했기에 그 제자됨을 자랑

하면서 스스로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여왔었다. 그러니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칠판을 지운다든지, 지식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는 책을 들고 강의실에 들어가는 것을 제자중에서도 수제자급에나 차례가 돌아가는 영광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수제자를 학생들이 허드레 일꾼으로 여기면 오해도 큰 오해가 아니겠는가?

어느 의대에서 조교가 열심히 칠판을 지우다 흰 가운이 찢어지면서 겨드랑이로 때묻은 속옷이 노출되었다. 이를 보고 박장대소를 하는 학생들에게 조교선생 일갈하여 가로되 『당신들이라고 별 수 있을 것 같소? 웃지마시오!』.

실상 이러한 고난의 길을 차청해서 3~4년 지내고 군의관복무를 마친후에야 전임강사가 될 후보에 오르고, 일단 전임강사로 임명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학자로서의 최고직급인 교수가 되는 것이다. 아뭏든 조교는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호랑이라 생각하면 틀림없다.

〈필자=서울의대 교수·의박〉

토막상식 ●

● 와이샤스의 세탁

와이샤스 칼라의 소매끝 때는 잘 지가 얇기 때문에 세탁할 때 더욱 힘을 주어 비벼서 빠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면 와이샤스가 쉬상하고 또 모양이 구겨져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때에는 더러워진 부분에다 세탁 비누를 칠하고 손톱 다듬을 때 쓰는 작은 솔 같은 것으로 가볍게 두드리고 닦으면 깨끗해진다.

그리고 칼라를 희게 하려면 빨래에도 공을 들여야 하지만 다름질을 할 때 칼라에 베이비파우더를 뿌리고 다리면 아주 희게 된다.